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1. 10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3~11/7)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 확실성 부각되며 달러 강세 나타난 영향으로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2조원 넘게 유출됨에 따라 원화 약세 압력 받으며 추가 상승
- 중반, 뉴욕증시 AI 고평가 우려 속 위험회피 분위기 확산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 지속되면서 1,450원선까지 상승
- 후반, 미 ISM 서비스업 PMI 호조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위험회피 심리 다소 진정되었음에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소폭 하락에 그침. 이어 주 후반, 미 기업 감원 규모 급증 등 고용 악화 시그널에 안전자산 수요 급증하면서 1,450원대 후반으로 추가 상승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8.2	1,458.5	1,425.8	1,456.9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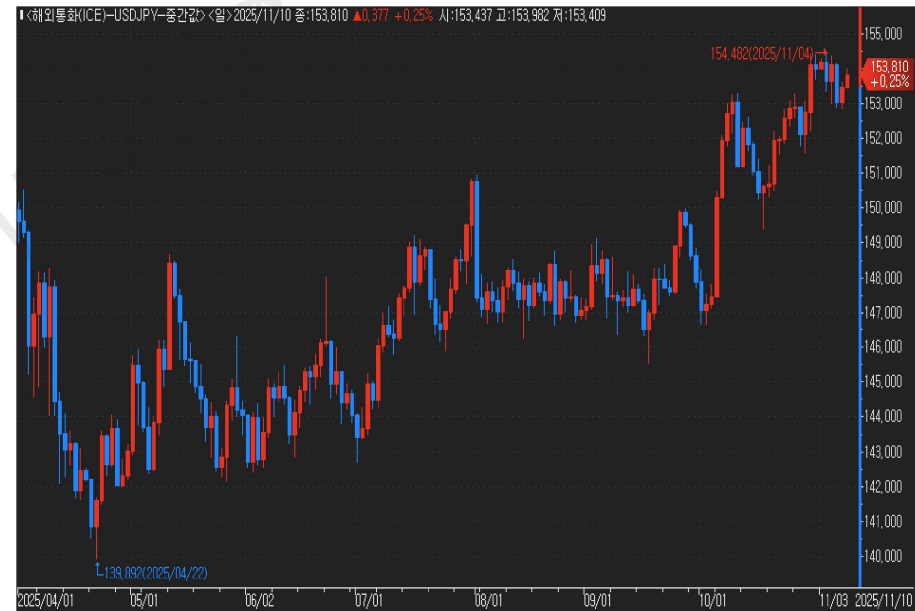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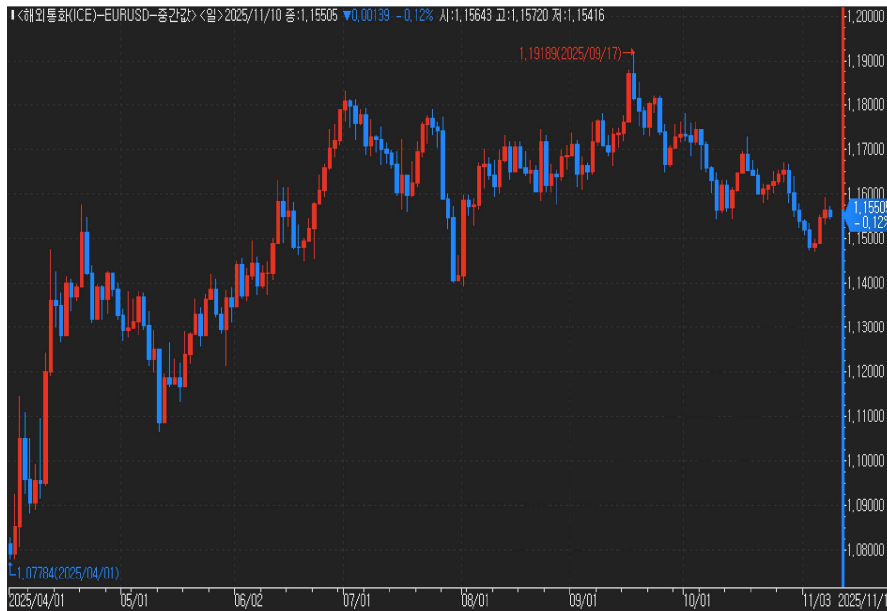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미 정부 섣다운 종료 기대와 완화된 위험회피 분위기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
- 미 연방정부 섣다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임시 예산안 합의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완화시켜 줄 요인으로 환율 하락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국내증시 매도세 완화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 예산안 타결 여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만큼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예상거래범위

1,440원 ~ 1,465원

유로·엔화 동향 (11/3~11/7)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10월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뉴욕증시 기술주 급락 등 위험회피 분위기 확산되자 추가 약세
- 중반, ECB 주요 인사들이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자 유로존 금리인하 사이클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면서 반등
- 후반, 미 고용 관련 데이터 악화에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달러 가치 급락,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 보이며 1.15달러선을 회복. 이어 주 후반, 독일 수출 개선세 등에 강세 흐름 이어진 가운데, 역대 최저 수준 근접한 미 소비심리 지표에 달러 약세 나타난 영향 더해지며 1.15달러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539	1.1591	1.1469	1.1564	+0.0025

엔화 동향

- 주초,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10월 FOMC와 도비시하게 평가된 BOJ 금정위 등 양국 간 통화정책 스탠스 차이 부각된 영향 이어지면서 엔화 약세 출발. 이어 급격한 엔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 재무상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개입 경계감 높아지자 크게 강세 보이며 153엔대로 하락
- 중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미 ADP 민간고용 지표와 미 ISM 서비스업 PMI 등 양호한 데이터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유입되자 약세로 전환
- 후반, 미 중시 AI 거품론과 미 기업 감원 계획 규모 증가로 인한 고용시장 냉각 우려 등에 글로벌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확산되면서 큰 폭의 강세 시현. 이어 주 후반, 예상을 크게 하회한 일본 9월 가계지출과 BOJ 10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앞둔 경계감 등에 재차 약세 보이며 154엔대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4.0	153.6	152.8	153.4	-0.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3~11/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강화 속에 30년물 국채선물 입찰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국면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대외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 국내 증시 급락 영향 등이 반영되며 기관 국고채 매수 심리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채권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이어지는 양상이었으나, 외국인의 국채선물에 대한 강한 순매도 움직임 등으로 국고채 시장 약세 흐름이어지는 국면
- 후반 들어, 미 ADP 고용지표의 시장 예상치 상회 소식과 재무부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등이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지속 후, 주 후반, 차주 국고채 3년물 입찰 소화에 대한 경계감 등이 이어지며 상승 지속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전주 후반 젠슨황 엔비디아 회장의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조 언급 등이 시장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반도체 관련 대형주 상승 등으로 코스피 사상 처음 4,200대 돌파. 이어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상승에도 코스피는 그간 APEC회의 전후로 반영되었던 기대감과 급등을 소화해 따른 차익 매물 등을 소화하며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국발 시버블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 속 외국인 투자자의 2조 원 이상의 순매도 등으로 큰 폭 하락
- 후반 들어, 뉴욕 증시가 AI 거품론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반등한 가운데 민간고용이 최장기 섀도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 점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 등은 상승 폭을 제한. 이어 주 후반, 미국발 AI 거품론 재점화 양상 속에 트럼프의 엔비디아 저사양 AI 칩의 수출 금지 소식 등도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코스피 3,900선까지 하락하며 마감